特수법인으로 승격한 漁港協會역할에 기대

李義秀 청장 협회 연두순시 漁港人배전단합당부

예산·용역비 확보 큰 성과

견실시공 선도 경쟁력 확보

孫회장보고 부설연구소 가동 활성화 도모

■ 이희수 수산청장은 1월 20일 한국어항협회를 연두순시하고 어항인도 수산인으로서 당면 현안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희수 수산청장은 1월 20일 한국어항협회를 연두순시하고 올해 어항예산과 용역비확보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어항협회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수법인으로 승격하는 협회의 기능역할에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어항시공에 모범을 보여온 업계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 기술개발 견실시공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희수 청장은 어촌활성화차원에서 어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어촌의 핵으로서 손색없는 어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공상의 애로 개선사항등은 어항협회를 통해서 건의, 안전시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 청장은 특히 어항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협회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전재, 『격상된 협회의 격에 맞게 단결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안오염 자원고갈등 어려운 수산여건에서 어항건설업계도 수산인으로서 당면현안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회원사대표자가 참석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어항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어촌개발연구소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조사연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협회 기능역할을 강화하고 어항관계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어항지정확대, 과감한 개발투자와 UR협상타결과 관련, 현행 계약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특히 신규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어장보호 관리법 제정추진

李청장보고 연안수역을 목장화

수산청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과 자원의 이용자와 훼손자등에 대한 부담금징수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어장보호관리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희수 수산청장은 1월 10일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청은 개발여건을 구비한 만과 어촌을 권역으로 해안수역의 환경보전관리와 수산자원조성, 어촌종합개발과 생산기반시설을 연계한 집중개발로 연안수역을 목장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에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지 선정, 기초조사 사업내용등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개방화시대에 대응키 위해 수산청 및 산하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의 재검토, 산하단체기구의 효율화 및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어항시설관리규정안 제정

관련기관·단체 의견조회

이용자 관리의무 등 명시

수산청은 1·3종어항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어항을 직접 이용 수익하는 이용단체(수협)의 어항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어항시설 관리규정(안)을 제정, 이달말까지 각 시도, 수협등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을 조회하여 2월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산청이 마련한 어항시설관리규정(안)에 따르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 수익하는 이용단체와 이용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했으며, 매월 2회이상의 어항청소와 폐유수용시설을 비치토록 했다.

또 이용단체는 당해 어항시설이 노후 또는 관리사용상 부주의로 손괴된 어항시설 보수, 안전관리 및 폐유처리등 어항환경보호와 어항안내관 설치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당해 년도 예산에 별도계정으로 편성토록 했다.

관리규정(안)은 이와함께 손괴어항시설의 보고 및 보수보강절차와 어항시설사용허가 협의시 검토사항을 규정했다.

漁港協 특수법인 전환 총회

2월23일 11시 건설회관서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2월 23일(수) 오전 11시 건설회관 3층에서 특수법인 전환 총회를 개최하고 특별행사로 판소리축하공연(김종엽 MBC마당놀이 탈랜트)을 가질 예정이다.

협회는 총회에 앞서 2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93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과 어항법 부칙 제4조에 의거, 특수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계획이다.

新紀元 이룩할 도약발판 구축

21세기 비전 제시할 연구 착수

孫井植회장
'94년 新年辭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희망찬 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어항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건국이후 최초의 문민정부 출범에서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격동과 변화가 소용돌이 친 그런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어항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눈물 겨운 성원과 관계기관의 뜨거운 협조로 우리 어항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무려 24년을 끌어온 어항법이 마침내 개정, 발효됨으로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21세기를 향한 어항 종합개발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사업을 협회에서 수임함과 동시에 이에 따는 정부예산도 처음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올 한해 우리 한국어항협회의 할 일은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우선 정부로부터 수임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협회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어항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어항국은 물론 이들 국가의 관련 연구단체나 학술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어항기술의 개발과 보급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항분야를 진흥시킨다는 공통 목표아래 어민과 어항인, 정부와의 사이에서 상호의견을 중재하거나 자문 및 건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항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도 올해 협회가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수임사업 성실히 수행 어항발전 구현

국민에게 어항중요성 홍보 관리 철저

이밖에도 협회 조직의 확대, 인력의 충원, 예산 증대 등 협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가 곳곳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같은 사업의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어항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도 힘과 뜻만 모은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앞에는 거칠것도、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새해엔 보다 성숙된 자세로 어항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어항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어항인 여러분。

역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어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새해를 만들도록 합시다。

끝으로 지난해 보내주신 어항인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 井 植
인쇄인 金 在 克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라3459
등록일:1988년2월19일

會訓
創意 奉仕 誠實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어항건설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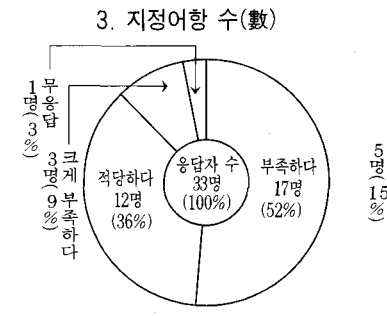
규모 작아 불편…기본시설 고루 투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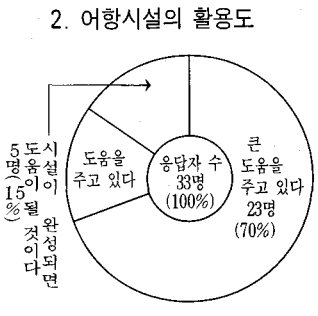
어항시설이 지역주민의 활용도면에서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현재 3백 99개의 지정어항 수는 부족하므로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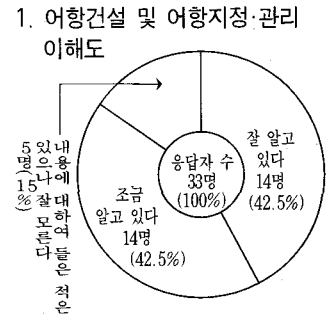
수산청이 최근 어항건설분야등에 대한 수산행정모니터 79명(지구별수협조합장 29명, 어촌계장 25명, 어민후계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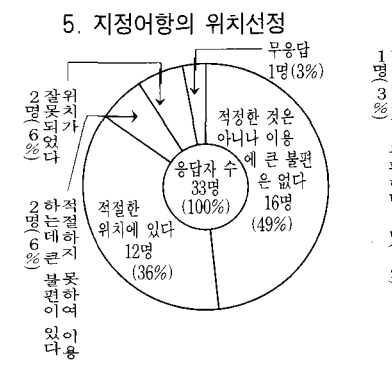
이 결과에 따르면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본시설위주로 해역별로 균형있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며, 어항규모는 작아서 불편하다는 구성비가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의 6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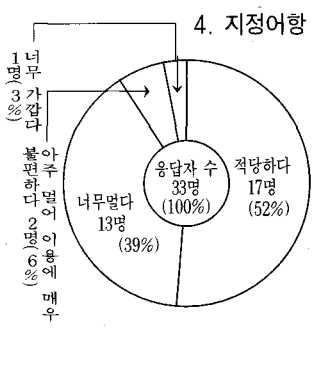
또 어항시설 관계공무원의 복무자세는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수협주관 어항환경정화실시는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폐윤활유 수거용 빈드럼활용도는 일부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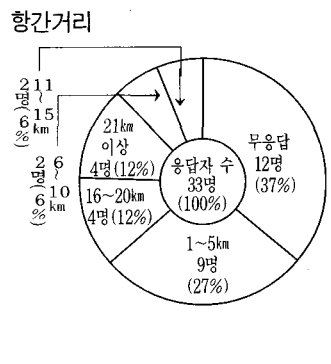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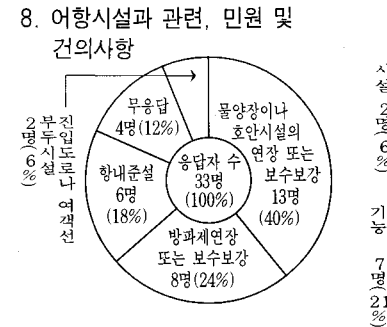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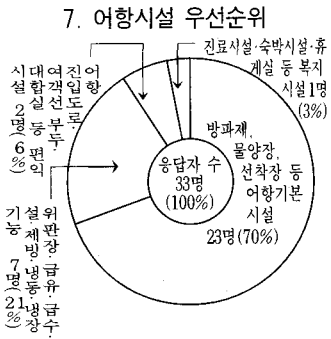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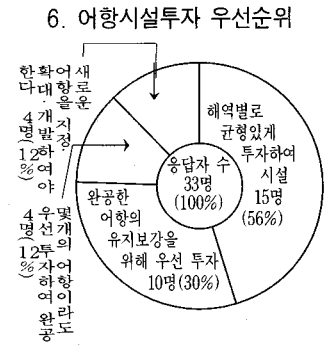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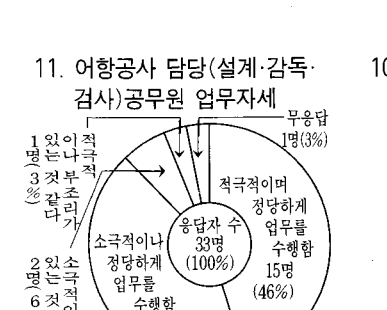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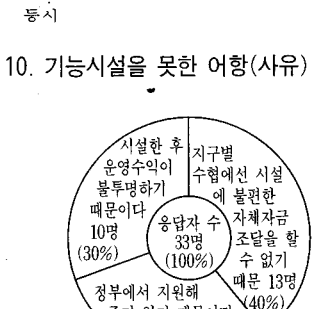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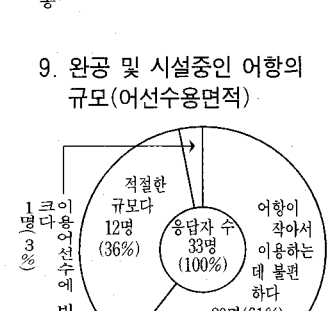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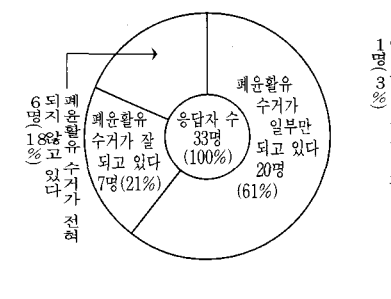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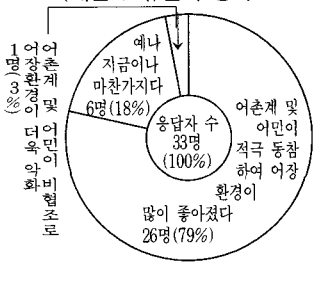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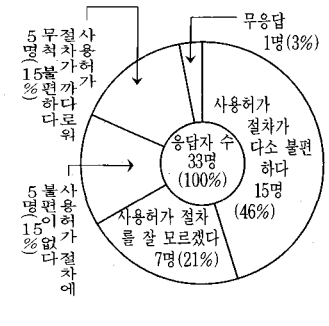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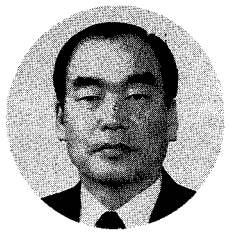
건설개방 종합대책추진
2월초까지 대책을 마련

정부는 UR협상타결에 따른 건설시장개방을 국내건설산업의 국제화 및 획기적인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오는 2월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초 UR의 발효가 올해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1월부터 1백% 외국건설업체의 단독투자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UR발효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허용시기를 95년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정부와 업계 공동의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구성, 실무대책반을 가동해 업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월초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動靜



李羲秀 수산청장

▲이희수 수산청장은 1월3일 동작동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94년도 중앙시무식에 참석 이어 수산청 무식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 7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개혁보고회에 참석 이날 오후에는 수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10일에는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 초도순시에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11일에는 수산물검사소 수협중앙회를 연두순시, 12, 13 양일간은 부산지역 산하기관단체 연두순시, 19일에는 63빌딩에서 열린 당정 조찬간담회에 참석, 20일에는 한국어선협회, 한국어항협회,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연두순시, 24일에는 칠레 수산차관을 접견하고 양국어업현안을 협의, 25일에는 전국수산관계관회의를 주재.

▲박광훈 수산청차장은 1월11일 주번국가간 어업협력방안에 관한 자문회의를 주재.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1월3일 청와대 신년하례식에 참석, 7일에는 수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11일에는 수산청장 연두순시를 받고 주요업무를 보고, 24일에는 협회창립 15주년기념식을 갖고 이어 전국지부장회의를 주재.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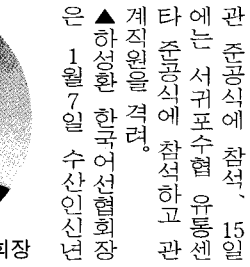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월3일 수산청 신년인사회에 참석, 7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수산인 신년교례회에 참석, 12일에는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국정개발북민회의 신년교례회에 참석, 13일에는 수산청 어항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어항법시행규칙개정(안)을 검토, 14일에는 수산청장을 방문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 20일에는 수산청장 연두순시에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당면현안을 건의.

▲배환갑 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월13일 진주에서 개최된 팔각회총재단회의에 참석, 15일에는 기독교장로회 이사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5일 광주전남 동화농민혁명 1백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석, 11일에는 대한체육회장 초청오찬회에 참석, 14일에는 유네스코 목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18일에는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25일에는 대한검도회 대의원총회를 주재.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사장은 1월3일 해운항만청 신년교례회에 참석.

▲임광수 임광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월8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충북출신 재경인사 신년교례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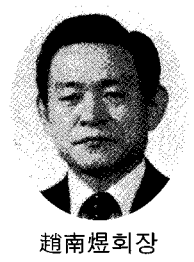
河星煥 어선협회장

▲하성환 한국어선협회장은 1월7일 수산인신년교례회에 참석, 20일에는 수산청장 연두순시를 받고 주요업무를 보고, 24일에는 협회창립 15주년기념식을 갖고 이어 전국지부장회의를 주재.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구랍29일 한국어항협회 발전기금으로 5백만원을 쾌척했다.

▲황철민씨(수산청어항과)·10만원.

▲송재성 주식회사성호 회장은 1월19일 한국어항협회 발전기금으로 3백만원 기탁을 약속했다.



趙南煜회장

기금기탁

화촉

▲주홍장 상근부회장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장남 용군은 1월19일 향군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황금추 사장(동광건설주식회사)의 장남 철희군은 1월16일 광주 현대예식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주소변경

▲정창세씨(수산청 국장)는 최근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을지아파트 626동 1401호로 주소를 이전했다.

▲박희열씨(수산청 제조과장)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꿈마을우성아파트 201동 2036호로 주소를 이전했다. 전화 : (0343)94-0376

인사이동

▲수산청은 최근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원양생산 담당 김민종 △어정과정 최재양 △제조과장 박희열 △지도과장 오준택 △어항과장 김형인 △국립수산진흥원 서무과장 최명립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박태조 △국립수산물검사소 제1검사과장 김회천 △서해어항사무소장 박정태 △남해어항사무소장 이전호 △수산청 박덕배 △국제협력담당 직무대리 김영규 △어장보전과장 직무대리 심호진 △국립수산진흥원 연구기획과장 박재준 △국립수산물검사소 △문용근 △손승렬 △신석순 △류제웅 △임인규 △정상현 △이수문 △한원석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박경국 △조영원 △배길중 △선병길 (이상 1월22일)

□수산청어항과 △이상기

□수산청 남해어항사무소 △손승렬 △신석순 △류제웅 △임인규

□수산청 서해어항사무소 △정상현 △이수문 △한원석

□수산청 동해어항사무소 △박경국 △조영원 △배길중 △선병길 (이상 1월18일)

□의원면직 △박선석 △이록형 (수산청서해어항사무소)

△정창세 국장 △신상호 과장 △지승욱 과장 △김용규 계장 △전기옥 계장 (이상 공로연수 파견 근무)

△어업진흥관 박기철 △어정국장 임종국 △수산공무원교육원장 김동균 △중앙공무원 교육원 파견 박규석 △기획관리관 직무대리 김상열 (이상 1월 22일)

부음

▲박광훈 수산청차장은 1월24일 모친상을 당했다.

▲이동배 고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랍31일 부친상을 당했다.

▲전욱 전무(합자회사대한토건사)는 구랍28일 모친상을 당했다.

회비납부

▲임광토건주식회사(회장 임광수)

▲개양흥산주식회사(회장 박인성)

▲주식회사성호(회장 송재성)

▲올룡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건웅)

▲신영태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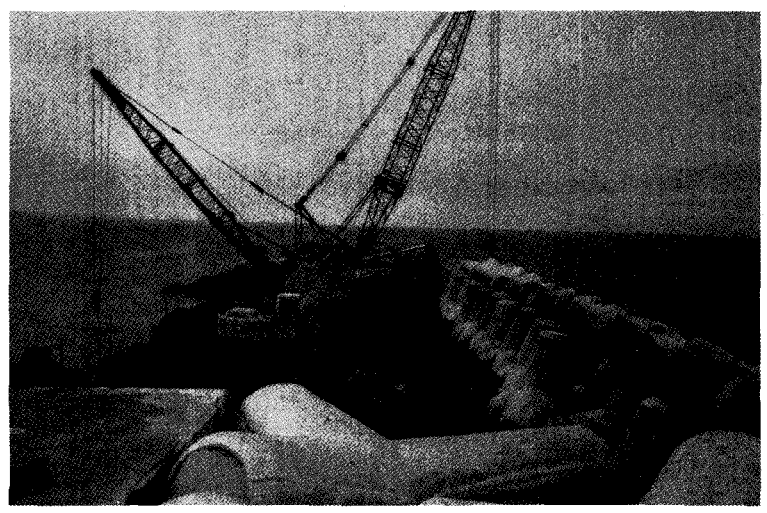
▲육종채씨(청수화학 사장)

'94년 어항시설 관계자회의

견실시공·품질향상등 협의

주요항 우선설계 발주
태풍 피해 최소화 토록
올해 설계기준을 합리화

수산청은 1월11일 94년도 어항시설사업 설계기준과 관련, 관계직원회의를 열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어항시공을 위한 토의를 가졌다.



■ 수산청은 1월11일 합리적인 어항시공을 위한 관계직원회의를 가졌다.

관계직원 3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까지 설계에 계상되지 않았던 트럭적재함 덮개 사용시간을 현장여건에 따라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예방과 인양작업의 편의를 위해 선단부 소단설치시 모래 또는 연약지반에서 선단부 TTP하단에 피복석소단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올해 설계기준을 합리화 했다.

서승욱 시설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어항은 우선 설계 발주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공감독을 철저히하여 어항시설의 품질향상과 견실시공을 당부했다.

조달청 隨契 평점제 개정…내달 시행
행정평점에 시공평가 추가
PQ대상공사 적격 업체만

조달청은 시설공사 수의계약사유평점제도에 시공평가항목을 신설, 성실시공유도로 공사품을 확보키로 했으며 평점 60점 미만 공사라도 낙찰률이 85% 미만인 경우 관계규정에 적합하면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던 특례조항을 삭제, 특혜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조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사유평점제도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행정사항평점표에 시공평가 항목을 신설 △90점 이상일 경우 10점 △80점 이상일 경우 5점을 평점키로 했으며 계약요청시 수의계약사유서 첨부를 명문화해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첨부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경쟁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PQ대상공사는 PQ적격업체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금차공사가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금차공사 규모는 총공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명문화했으며 규모대비평가는 하자는 혼잡 25% 이상의 관련 모든 전차공사를 합산 사실적이 2백억원 이상으로 돼있던 일반 및 특수건설업체에 대한 건설기술개발투자권고 대상법위도 2년실적 5백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기술자보유 교육기간도 단축됐다.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은 종합감리회사의 경우 △감리원 50인(특급10인, 초급40인) △자본금 10억원 △전용면적 3백㎡이상 사무실 △자동염분측정기 측량기계등 7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토목감리전문 및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 30인(특급5인, 초급25인), 자본금 3억원, 사무실 2백㎡ 보유기준은 동일하고 장비는 토목회사가 자동염분측정기등 4종, 건축회사가 7종을 각각 확보토록 했다.

建技法 시행령·규칙개정
建資材 품질시험을 의무화

현재 토목시공 건축시공 토목전면책임 건축전면책임으로 구분돼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올해부터 종합 토목 건축으로 개편되고 감리원 시설 장비등 등록기준도 크게 바뀌었다.

또 최근 2년간 건설공사에 국내외 건설업체 및 건설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건설시장개방대책 실무작업반은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URS서비스협상 및 정부조달협상의 최종 타결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업계가 앞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 실무반회의에서는 외국건설업체들의 주요공략목표가 될수 있는 PQ, 턴키대안입찰공사를 현재 조달청이 집중 발주케 됨으로써 외국업체의 국내시장접근이 용이해질뿐 아니라 중앙조달체계로 수요기관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계약집행이 곤란하다고 지적, 이들 공사를 각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조달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하도급제도문제와 관련 턴키수주시 시공분야를 일반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건설업체의 EC추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턴키공사 수주후 시공부분 일괄하도급을 허용하는등 일괄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국내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으로 건설업에 대한 차등금리제 철폐를 통한 산업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금융을 원활하게 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 건설업체 국내시장 접근용이한
조달청집중 공사발주지양
建協 하도급 분할발주금지 등 개선 건의

94 표준품셈 56항목 신설·보완

올해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전회전식말뚝공법 등 29개품이 신설되고 경량천정철골틀 설치등 기존품 27개가 현실에 맞게 보완됐다.

건설부는 최근 표준품셈종합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설공사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부건설공사 표준품셈등 토목 31개 건축 13개 기계설비 12개등 총 56개항목을 신설 또는 보완키로 확정, 1월이후 국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공공건설공사의 표준품은 토목부문의 경우 종전의 8백45개에서 18개항목 신설, 13개항목 보완으로 8백63개로 늘어났다.

SOC사업시행자
토지수용허용키로
정부 민자유치 촉진법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에 민간자본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확대를 비롯 시설재에 대한 상업차관의 대폭 허용, 실질적인 세제감면등 우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SOC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 SOC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관리 운영권을 부여 했는데 이는 분할합병 처분 저당이 가능한 권리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시행자에게 차관도입이 가능하도록하고 공공법인의 경우 채권발행 및 외국차관 도입에 대한 정부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영권보장 및 수익성확보를 위해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SOC시설의 시설관리운영권자는 총사업비 회수기간동안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유토록하고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경영권을 변경시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완벽한 漁港시공으로
풍요로운 漁村을
建設하겠습니다

水産廳東海漁港事務所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3〕

冷凍 冷藏施設 用地

냉장고의 규모(수용량) 결정

냉장고의 규모 결정은 〈그림1〉과 같이 한다.

① 어획량의 산정은 항별 계획작성의 순서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연간 어획량의 산정 (육상 반입량 포함) → ② 이용목적별, 배분율에 따라 냉장고용 출하량 결정 → ③ 회전율(연간) 결정 → ④ 수용량의 결정

〈그림1〉 냉장고의 규모 결정 순서

② 이용목적별 배분율은 어선에서 양륙된 어획량 또는 육상반입량이 이용 목적별로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 냉장고를 중심으로 한 그 이용 배분율을 표시하면 〈표1〉과 같다.

이용 배분율은 어종의 구성, 가공형태, 사회정세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현황과 과거의 추이, 어항항세조사 등에 의해서 이용목적별 배분율, 항세와 유사한 어항의 자료등을 참고하면서 구할 수 있다.

〈표1〉 냉장고 보관상황 및 동결 이용 상황

지구	냉장능력	연간 입고량	연간 출고량	연도말 재고량	월말평균 재고량	회전수 계획	회전수 실적	연간평균 재고율	동결 규모	동결 이용량	대상어종
	톤	톤	톤	톤	톤	회/연	회/연	%	톤/일	톤	
厚岸(北海道)	1,500	3,212	3,141	744	742	3.6	2.1	82	15	377	청어, 대구
釜石(岩手縣)	1,150	1,345	975	370	381	3.8	1.2	66	20	964	꽁치, 연어, 송어 오징어, 고등어
宮古(宮城縣)	1,000	1,600	1,254	346	28	2.9	1.6	21	10	879	꽁치, 고등어, 오징어, 멸치
鹽釜(〃)	2,500	9,142	9,226	1,276	1,276	2.9	3.7	31	-	-	가자미, 고등어, 대구
(福島縣)	1,500	5,863	5,457	1,055	710	3.0	3.9	-	30	2,149	고등어, 꽁치, 멸치
那珂湊(茨城縣)	2,992	6,572	6,476	1,346	1,332	1.8	2.2	74	21	953	문어, 멸치, 청어
銚子(千葉縣)	3,113	3,508	3,328	1,127	938	4.0	1.1	60	-	-	꽁치, 고등어, 참치 간고등어
沼津(靜岡縣)	2,774	8,917	7,651	1,266	1,250	2.3	3.2	61	30	2,880	전갱이, 고등어, 오징어
氷見(富山縣)	900	1,519	1,426	627	521	1.5	1.7	45	16	1,091	멸치, 전갱이
金澤(石川縣)	1,224	2,182	1,538	644	334	3.0	1.8	45	-	-	오징어
勝浦(和歌山縣)	2,980	8,218	7,747	1,061	980	3.0	2.8	60	30	1,785	참치, 고등어, 멸치
阿久根(鹿兒島縣)	1,000	1,125	1,068	57	33	3.9	1.1	2	30	2,210	멸치
山川(〃)	2,371	4,922	5,026	683	29	3.0	2.1	-	25	119	간고등어, 참치
枕崎(〃)	5,460	12,110	13,006	-	1,224	-	2.2	-	66	3,794	간고등어, 고등어
計	30,464	70,235	67,319	-	-		2.3	-	-	-	

건·강·하·게·삽·시·다

술과 건강

맥주 2병이내가 가장 알맞아 술은 췌장암 원인 될 수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해의 신년계획을 세우는데 그중 특히 주당들에게는 금주 또는 절주가 가장 흔한 표어일 것이다. 해마다 거듭되는 금주·절주의 대상이 되는 술은 도대체 무엇인가? 중국의 고사에 보면 하나라의 愚王때 세계 최초로 술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술을 가지고 왕께 진상하니 왕께서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할 사람이 많으니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셔보니 기분이 좋으니 소위 말주의 형태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술을 마시면 우리의 뇌에 있는 소위 대뇌피질을 마취시켜서 대개 3가지 단계의 생리현상이 나타난다. 첫째로 약간 마신경우 소위 여우의 단계라고 하여 눈꼬리가 올라가고 말이 많아지며 입가에 생글생글 미소를 띠는 단계, 둘째로는 늑대의 단계라고 하여 술로 인해서 사나와져서 남을 욕하고, 혈뜯고, 소리지르고, 책상을 치고, 심지어 타인을 구타하는 단계, 셋째로 돼지의 단계라고 하여 거의 대뇌가 마비되어 인사불성이 되어 아무데서나 먹고 잠자는 단계이다. 술은 알코올이라는 약물이므로 위의 생리반응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술은 신체의 질병, 위염위암, 췌장암의 원인이 될수도 있으며 특히 간장에 해롭다는 것은 이젠 누구나 아는 상식의 이야기인것 같다. 그러나 실지로 술로 인하여 간장염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알코올이 상당한 기간동안에 섭취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실제 일상적으로 술을 많이 마신다는 환자들은 대개 간기능이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복부초음파검사 등에서 지방간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반적인 간염의 증세(쉽게 피곤해지고, 식욕이 없고, 황달이 생기고, 우상복부를 누르면 아프고 간이 커져 있다)가 나타나면서 혈액검사상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평소 과음을 오래지속한 기왕력이 있을 때는 일단 알코올성 간염의 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알코올성 간염은 간혹 바이러스성 간염보다 더 욱 심한 경우도 있게되며 약 3분의 1의 환자에서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진행된다. 그리하여 간경변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게 된다.

간경변은 계속적으로 간의 정상조직이 파괴되면서 굳어져 가는 것이므로 결국 여러 합병증으로 대개 몇년이내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같은 술은 사회생활을 하는한 마실 수 밖에 없다. 꼭 마셔야하는 경우에는 앞서얘기한 바와같이 소위 여우의 단계(보통 맥주 2병정도)가 오게 하도록 마셔야지 그 이상되어서는 안되겠다.

상속세

상속인에게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 稅務안내

○ 상속세제도

상속세라 함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상속세 납세의무자

·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할을 가산하게 된다.

○ 신고와 납부

·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에 납부한다.

·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일변 4전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된다.

· 납부해야할 세금이 400만원을 넘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3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세금이 240만원 이상이고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넘을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상속의 포기

자기몫의 상속지분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 상속재산에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공 제 액
① 미납부공과금	전 액
② 장례비용	200만원
③ 부 채	전 액
④ 기초공제	6,000만원
⑤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1억원+(결혼연수×6백만원) 2,000만원 20세까지 연수+300만원 3,000만원 75세까지 연수×300만원
⑥ 주택공제 3대이상 대물림 주택 등은 한도외 추가공제 ⑦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⑧ 가업상속공제	기초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⑨ 산림상속공제	전 액

(주) 1.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는 자녀 2인에 한함.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출자한 경우 출자지분에 대하여도 농지·초지·산림지로 보아 상속공제 인정

○ 상속세액

·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일반지역·특정지역 모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①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②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③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등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稅務안내

○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55%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 류	공 제 액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1억2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 초과	3억2천8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